

화순군 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 개최

24~25일...바이오단지 투어도
세계적 석학 등 900여명 참석
백신개발·차세대 면역치료 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

화순군이 24~25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4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백신 개발 및 차세대 면역치료 그리고 AI'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10여명이 참여해 첨단 백신·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향, AI 기반 면역치료기술 연구 등에 관해 발표한다.

또 사업화로 연결되는 백신·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제조 과정, 첨단 의약품 개발 기술, 첨단면역치료제 개발 동향 등도 다뤄진다.

첫 날 글로벌 전문가 포럼인 '미래지향적 백신과 면역치료 기술' 세션에는 미국 바이러스 학회장이자 코넬대학교 핵터 아길라라 카레노 교수, 일본의 첨단 재생의료 선도기업 힐리오스의 하디 TS 키기모토 대표, 마이크로전자연구소 A*STAR 수석과학자 피터창, 국제 팬데믹 대비 사무국 공동의장 신기가 마칭아이즈, 한국연구재단 차세대 바이오단장인 한양대 남진우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산업계 전문가 포럼인 '백신과 면역치료 기업 혁신 사례' 세션에는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세포유

전자치료제팀 송포룡 팀장, SK바이오사이언스 디지털혁신실 김혜미 팀장, 포스박스 김홍진 대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박정수 교수, 박셀 바이오 신의철 전략기획본부장이 나선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백신과 면역치료 발전 주제 토론을 갖는다.

둘째 날 25일에는 화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내 백신·면역 혁신 기관을 방문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포럼은 대한민국 유일의 백신특구이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화순에서 개최되는 포럼으로, 국내외 세계적인 백신 전문가와 기업인, 연구자, 학생, 일반 참가자 등 9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26일부터 9일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생태탐험·우유파티...가족 체험행사 가득

갈대밭 생태공원 일원서 열려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26일부터 9일간 펼쳐지는 춤추는 갈대축제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배우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갈대로드 생태 탐험대는 초등학교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문 해설사와 함께 1572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운다.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태 사랑 동화나라는 어린이들이 대형 도화지에 강진만의 대표 동물들을 그리며 자연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활동이다.

핑크퐁과 튠튼뱀의 댄스파티, 엄마까투리

싱어롱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선보인다.

축제 기간 버블&매직 솜사탕 쇼는 비눗방울과 마술 공연, 솜사탕 퍼포먼스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유파티(우유텍)도 열린다.

एको 자전거 솜사탕 체험은 자전거 발전기를 사용해 솜사탕을 만드는 체험으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배우며 놀이를 즐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연날리기 체험과 갈대밭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연을 날리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남해안 최고 최대 생태서식지인 강진만 갈대밭에서 펼쳐질 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 선비 문화제...도포 입고 선비의 삶 체험

26일, 인문학 강연·퓨전국악 공연



장성군이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선비문화제를 연다. 선비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필암서원 가는 길' 체험 프로그램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하서와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선비문화제'를 연다.

장성군에 따르면 '2024년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선정으로 마련된 이번 선비문화제는 1부 '필암서원 가는 길'과 2부 문화제로 구성된다.

'필암서원 가는 길'은 선비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통 선비 의상을 입고 옛 공부 방식을 체험하거나 인종 임금이 하사한 목죽도 목판을 화선지에 직접 찍어본다.

필암서원이 배향하는 하서 김인후 선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우동사 봉심과 장판각 근처에선 보물찾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2부 문화제에서는 퓨전국악을 들려줄 '서희선 위드 퓨전 사운드 혼'과 버려진 농악 분무기로 만든 첼로 연주로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하는 '유니크 첼로 듀엣'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MBN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 소리의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공연 이후에는 인문학 강연도 열린다. 조정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조선 선비들의 그림과 필암서원 목죽도'를 주제로 강의를 맡는다. 동양미술 평론가라도 활동하고 있는 조 교수는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 김홍도, '그림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등 2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이 외에도 '선비 백일장', 전통 음식을 만드는 '선비 요리사', 붓과 먹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선비 화실', 다양한 전통놀이가 있는 '선비의 놀이터' 등 즐길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훌륭한 학자와 청백리를 여럿 배출한 장성군 고유의 선비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올해도 수소차 3대 보급한다

대당 3500만원 지원

함평군이 수소경제 활성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수소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수소차 보급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 승용차 9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3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8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3500만원으로, 함평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

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은 수소차 판매처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환경관리과장은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며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전남도 장터유랑단 27일 담양상설시장 공연

전라남도 장터유랑단 공연이 오는 27일 오전 11시 담양상설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전라남도 장터유랑단은 전라남도상인연합회와 전라남도상인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줄타기, 추억의 동동구름무,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담양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공연을 통해 눈과 귀가 즐거운 흥겨운 한마당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옛 시절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전라남도 장터유랑단 공연 포스터.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